

☞ 예방 및 관리수칙

활동 전



진드기 노출 최소화
밝은 색 긴옷 착용

활동 후



접촉 진드기 제거
귀가 즉시 세탁 및 목욕

활동 중



진드기 접촉 피하기
휴식 시 돛자리, 주기적 기피제 사용



진드기 기피제 효과 지속 시간

대부분 4시간 이내

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지키기

☞ 묻고 답하기

Q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?

A 진드기에 물린다는 것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에 감염된다는 것을 동일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.5%의 최소 양성율을 보며, **일부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**

Q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에 감염되었는지 검사해도 될까요?

A 진드기에 물렸다고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. **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하여도 감염 여부가 확인 되지 않습니다.**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, 해당 부위를 소독합니다. 이후 21일 동안 **임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.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**



예방 및 관리수칙

진드기 접촉 피하기, 진드기 제거, 조기 진단·적기 치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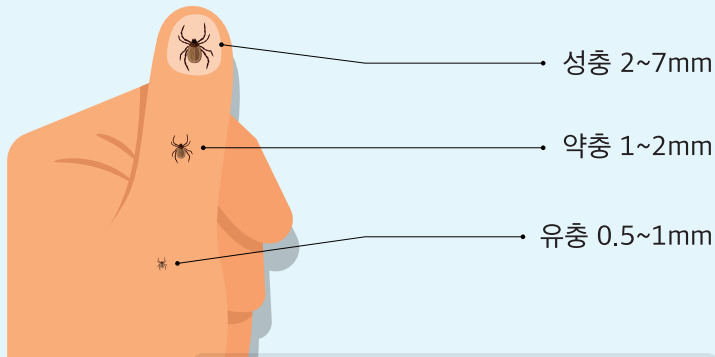
질병관리본부
KCDC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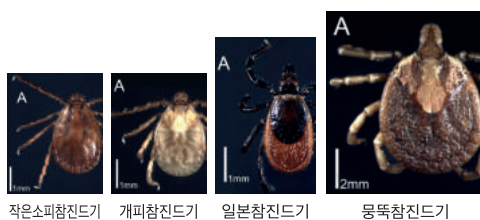
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가 원래 기생하던 들쥐나 다람쥐, 새, 고라니, 멧돼지 대신에 우연히 사람 몸에 붙어 우리의 신체를 물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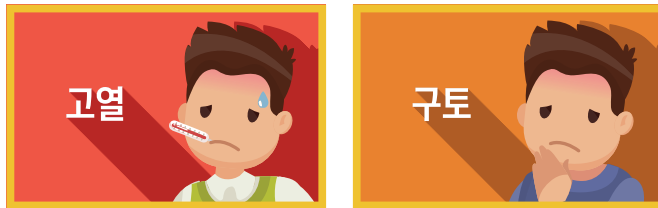
국내 참진드기의 주요 종 및 크기



피참진드기속 Genus *Haemaphysalis* 참진드기속 Genus *Ixodes* 뿔참진드기속 Genus *Amblyomma*



주요 임상 증상



주요 임상 증상

- 고열(38~40도)
- 오심, 구토, 설사, 식욕부진 등
- 피로감, 근육통, 오한, 기침, 가래 등

중증의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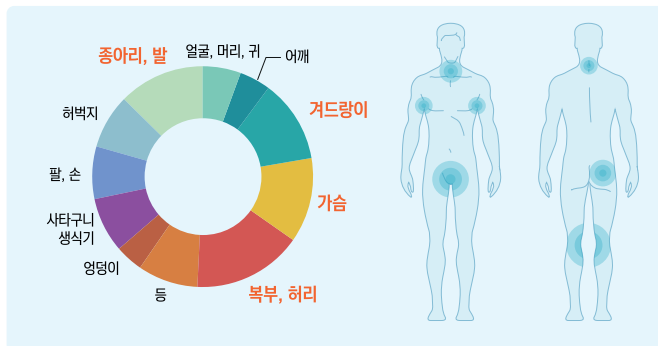
- 근육잔떨림, 의식저하, 혈변, 혈뇨, 점출혈 등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음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**조기 진단·적기 치료**가 중요합니다.

“ 야외활동 후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”
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
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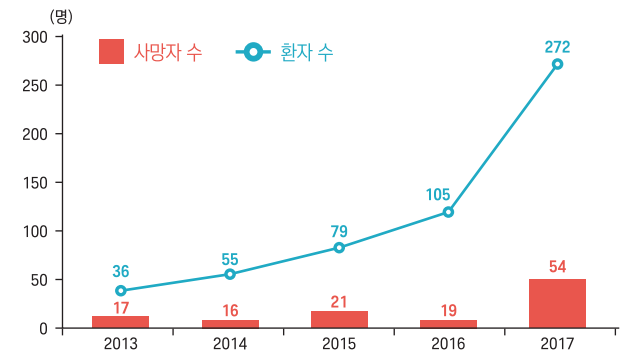
진드기 교상 흔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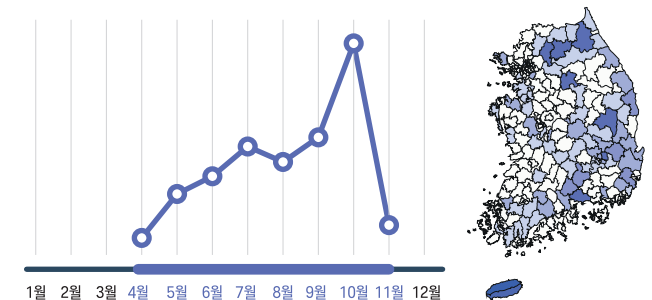
참진드기에 물린 흔적은 사람의 피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
보통 모기에 물린 것과 유사하여, **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진드기 물린 흔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**

※ 13~16년 SFTS 환자 중 진드기 물린 흔적 발견 비율 26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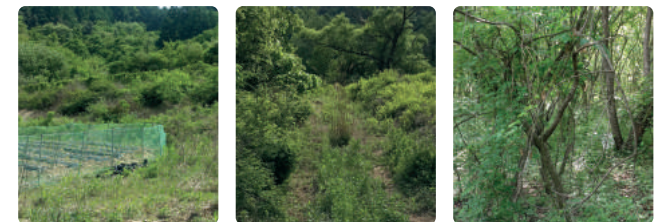
발생 현황 및 위험 지역



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 발생은 총 607명, 사망자는 1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

주로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4~11월 사이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

산 인근 밭

우거진 숲

정비되지 않은 산길

진드기 노출 주요 장소는 산 인근 밭, 우거진 숲, 정비되지 않은 산길 등 산과 인접한 풀이 있는 곳입니다.